
 <b>금융위원회</b>	<b>보 도 자 료</b>				 <b>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, 부산</b>
	<b>보도</b>	<b>10.28(월) 19:00부터 보도가능</b>	<b>배포</b>	<b>2019.10.28.(월)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이 진 수(02-2100-2880)	<b>담 당 자</b>	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886)
	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 범 열(02-3145-7150)		권 영 수 팀장 (02-3145-7166)
	은행연합회 은행경영지원부장 김 수 연(02-3705-5415)		정 해 민 팀장 (02-3705-5094)

## 제 목 : 「주한 아세안 ·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」 개최

### ※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11.25~27) 계기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

- ☐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· 은행연합회는 10.28(월)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제5차 주한 아세안\* ·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

\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 등 10개국

#### < 제5차 주한 아세안 ·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요 >

- ▣ 주최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
- ▣ 일시/장소 : 2019.10.28.(월) 18:30~21:00 / 은행회관 뱅커스클럽
- ▣ 주요 참석자
  - (아세안 · 인도) 탄 싹 주한 미얀마 대사 등  
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대사(부대사\* 포함) 11명  
\* 인도네시아, 라오스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인도 부대사 등 대참
  - (한국측)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윤석현 금융감독원장, 김태영 은행연합회장, 은행장\*(13명), 금융유관기관 기관장\*\*(6명) 등
  - \* 산은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은, 국민, 씨티, 수은, 수협, 대구, 케이뱅크, 카카오은행
  - \*\* 주금공, 금융결제원, 금융연구원, 금융연수원, 국제금융센터, 신용정보원

- ☐ 이번 행사는 한-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'15년 처음 개최('15.8.24.)된 이래 다섯 번째 열리는 연례 간담회로,
- 각국 금융산업 발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·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

□ 특히 올해는 한-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달 25-27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‘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’를 앞두고 주한 아세안·인도 대사를 초청하여 관심과 지원을 당부

□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신남방 정책\*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·발전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

\* '17.1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시 발표한 정책으로서, **사람(People), 상생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의 3P**를 핵심가치로 하여 **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**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**획기적으로 발전**시킬 것을 제시

○ 또한,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번영을 위해 금융위는 ①신남방 국가 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②민간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과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③한국의 금융 관련 제도·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

○ 이와 더불어,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핀테크 기술과 접목하여 핀테크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한국의 핀테크가 아세안 통합과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

□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한국과 아세안·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한국이 이처럼 아세안·인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대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

○ 앞으로도 국내 은행들이 아세안 및 인도 금융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

□ 탄 신(Thant Sin) 주한 미얀마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·아세안·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만찬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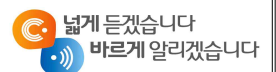
-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아세안과 인도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
- 한국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지역통합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세안 각국과 인도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

<별첨> 주한 아세안·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\_부위원장 축사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## □ 개요

### ○ 명칭

- (영문) 2019 ASEAN-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<sup>st</sup> Mekong-Republic of KOREA Summit
- (국문) 2019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·메콩 정상회의

### ○ 일자 : 2019년 11월 25일(월)~27일(수)

※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(11.25~26) 계기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 개최(11.27)

### ○ 장소 : 부산 벡스코, 누리마루

### ○ 초청대상 : ASEAN 10개국 정상 및 ASEAN 사무총장 등

\* (아세안 회원국)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\* (메콩 국가)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태국, 베트남

## □ 주요 부대행사

### ○ 비즈니스 & 스타트업 엑스포

※ CEO써밋, 스타트업써밋, 특별전시체험관, 수출입투자대전, K뷰티 홍보관 등 행사 개최

### ○ 문화혁신포럼

### ○ 스마트시티 페어

### ○ 공공행정 혁신전시회, 행정장관 회의, 장관급양자회담

### ○ 한·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

### ○ 메콩 바자 :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

### ○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

## □ 개요

- (회원국)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베트남,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(가입일 順)
- (인구 및 경제규모) 세계인구의 8.9%(6억 5천만 명), 세계 교역규모의 6.6%(2조 5,748억 달러) 차지(기준: 2017년/ 출처: 세계은행 「세계개발지표」 통계청)
- (공동체) △정치안보 공동체, △경제 공동체, △사회문화 공동체 등 공동체 출범(2015년 경제 공동체 출범, 인구 세계3위, GDP 7위)

## □ ASEAN의 중요성

- 원유, 가스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로이자 우리 교역의 주요 통로
- 한국의 핵심 경제파트너로 부상(제2의 교역대상, 제2위 건설수주시장)
- 풍부한 노동력 보유, 글로벌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(Post BRICs 시장)
- 인적교류(우리 국민 제1의 방문지, 764만명), 한류 등 사회·문화적 교류 활발

## □ 우리나라와의 협력체계

- 한-ASEAN
  - 한-ASEAN 정상회의(1997년~), 한-ASEAN 외교장관회의(1979년~) 정례화
  - 분야별 각료회의(경제, 교통, 통신 장관회의 등), 공동협력위원회\*
  - \* 한-ASEAN 협력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ASEAN 대사급 협의체
- ASEAN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 국민 대상 ASEAN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'ASEAN 문화원' 개원(2017년 9월 1일)
-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, 2017.11월 「한·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」 선포
- 한-ASEAN 협력사업 기금(1990-2017년간 약 8,8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)